



### 03. 촌놈 임군

송병승 자유기고가

촌놈은 친구 임군의 별명이다. 점잖은 말로 촌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낮춤말인 촌놈을 끌어 들이는 이유는 흙냄새가 더 풍기고 진솔한 삶을 사는 영원한 농민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상아탑 시절에는 학과의 대표를 맡고 있었으므로 회장님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50여년 가까이 서울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날 절친한 친구 여럿을 부르더니 폭탄발언을 하는게 아닌가? 큰 따님과 사위가 살고 있는 경기도 k군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이다. 부인의 퇴직 연금을 투자하여 농민이 되겠다고 한다. 밭 900여평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미 결단을 하고 심경을 밝혀 우리들은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 벌써 3년 반이나 흘렸다. 그동안 임군 농장을 대여섯 번은 다녀왔다. 취미 생활인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여생을 맡기는 농민이 되겠다는 각오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찾을 때마다 생활필수품인 식용유, 화장지, 세탁용세제류를 들고 가면 어머니! 우리네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하얀 이를 들어 내며 미소를 짓는 부인이 인상적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번갈아 방문하면 씨앗이 돋고 파란잎새를 보았다가 늦은 가을 방문할 때면 고추 농사가 평년작이라는 등 김장이 흥작이라는 등 대화의 소재가 수확이야기이다. 두 달에 한번 있는 동창들 모임에 임군이 상경을 했다. “여보게! 촌놈! 시골 사는 재미가 어떤가?” 악의 없는 농을 던지면 “자네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 서울놈이군. 나도 지난날에는 서울특별시민이었다네. 촌에 사는 촌놈이라고 너무 괘시하지 말게!” 한바탕 웃음으로 우정을 확인했다. 제일 어려운게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비가 너무 와서, 너무 오지 않아서, 즉 일기불순이 불안케 한다고 한다. 공직생활 3년여를 빼고 줄곧 사업가로 활약한 친구가 새로운 농촌 인생을 걷는걸 보고 늙바탕의 결단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빨리 변신을 하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관혼상제가 있는 날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닭과 개까지 있어서 오래 지체할 수 없어 열차에 몸을 싣어야 하므로 언제나 조바심으로 지낸다고 고백을 한다. 며칠 전이다. 동창 열댓 명이 모여 1차 회식을 하고 2차 노래방으로 향했다. 임군이 보이지 않는다. 무력무력 크는 작물과 독두공방의 왕비 마마를 잊을 수 없어 자리를 비웠음을 직감했다. 하루라도 쉬고 덕담을 나누었으면 좋을 터인데 모습을 감추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쉽지 않은 발농사를 일구어 내는 임군 내외의 건승을 소망한다. 틈틈이 책을 읽으라고 몇 권사서 보내야 되겠다. 이농인이 있는 반면 귀농인도 있기 마련이어서 나도 언젠가 흙의 아들 촌놈이 되고 싶다.